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 (30차)

---

###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종합) 제주도, 3번째 확진자 방문업체 임시 폐쇄
- 긴급사태 대비한 병상 확보 완료... 안심병원도 4곳으로 확대
- ‘어디 어디 들렀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CCTV로 포착
- 제주도, 농축사업장 코로나 예방 지속 점검
- 제주지역 교회 165개소 예배 취소에 동참
- 코로나19 차단 만전... 양지공원, 방문객 전원 발열검사 실시

2020. 3. 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20.3.2. 일일 통계 브리핑

### □ 국내 발생동향('20.3.2. 09시 기준)

- (전국) 확진환자 4,212명 (31명 격리해제, 22명 사망)
- (제주) 확진환자 3명

< 국내 발생동향('20.3.2. 09시 기준) >

단위: 명

구분	확진환자(누계)				검사현황(누계)			자가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도	3	0	3	0	927	50	877	134
일일 증감	+1	0	+1	0	+30	-24	+54	-28*
전국 (0시 기준)	4,212	31	4,159	22	105,379	33,799	71,580	(미공개)

\* 도내 2번 확진자(#139) 관련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 등(3번 확진자 접촉자는 조치 완료 후 반영 예정)

### □ 입도객 현황('20.3.1.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3,739명
- 총 입도객 수는 작년 같은 날 대비 70.6% 감소(46,664명→13,739), 전일 대비 9.5% 감소(15,175명→13,739)
- 내국인 13,402명(97.5%), 외국인 337명(2.5%)이 제주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69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20.5% 차지

< 입도객 현황('20.3.1. 기준) >

단위: 명

구분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3,739	13,402	337	69	8	260
	2019년	46,664	42,884	3,820	2,371	219	1,230
	증감률	△70.6%	△68.7%	△91.2%	△97.1%	△96.3%	△78.9%
누계* (2.23.~)	2020년	109,130	106,084	3,046	128	379	2,539
	2019년	293,210	263,735	29,515	14,812	1,731	9,374
	증감률	△62.8%	△59.8%	△89.7%	△99.1%	△78.1%	△72.9%

\*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일로부터 누계

  <b>제주특별자치도</b>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3. 2.(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b>재난안전 대책본부</b>	<b>보도자료</b>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후속자료: 있음

## (종합) 제주도, 3번째 확진자 방문업체 임시 폐쇄

- 해당업소 일제 소독도 완료...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 진행중 -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들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5개소에 대해서 방역 소독과 임시 폐쇄 조치를 완료했으며,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확진자 동선 상 확인된 장소는 방역 소독과 임시 폐쇄 조치를 거쳐 완전히 출입 통제되는 폐쇄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제주도는 A씨의 진술과 CCTV 및 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추가 동선과 마스크 착용 여부, 접촉자 등을 재확인하고 있다.
- 대구에 거주하다 지난 23일 제주에 입도한 A씨(48·여성)는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아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 45분 대구발 제주행 티웨이항공편으로 오후 5시 30분께 제주에 도착한 후 지인 B씨의 차량으로 이동해 제주시 조천읍 소재 지인 B씨의

거주 주택에 머물러왔다.

- 역학조사결과 A씨의 코막힘, 목 잠김 등 증상이 발현된 날은 27일로 확인 됐다.
- A씨는 3월 1일 오후 5시쯤 대구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지인 B씨의 차량을 이용해 제주 시내 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뒤, 자진 검사를 요청한 결과 2일 오전 0시 5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제주도는 A씨 확진 판정 후, 지인 B씨에 대한 검체 검사도 즉각 의뢰해 오전 4시 20분경 음성판정을 전달받았다.

□ 또한 제주도는 A씨의 1차 동선을 재난안전문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의심 증세가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A씨는 스스로 신천지와 연관이 없다는 진술을 했으며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 도내 세 번째 확진자 진술에 따른 동선(2월 26일~3월 1일) 및 조치사항

일자	시간	이동 경로	접촉자 정보 및 조치 사항
02.26	11:00	지인 B씨 거주주택(조천읍 소재)	지인 B씨 등 3명 → 3명 자가격리
	12:00 ~ 17:30	지인 B 등 3명과 함께 구좌읍 동북향 방파제에서 낚시	
	17:40 ~ 18:25	위 일행 3명과 함께 '제주 그때 그집 함덕점' 저녁식사	식당 직원 1명 → 3명 자가격리
	18:25~ 18:30	'제주 그때 그집 함덕점' 식당 차량으로 '함덕오군무직타운 노래방' 이동	→ '제주 그때 그집 함덕점' 방역 소독 완료, 임시 폐쇄중 → '함덕오군무직타운 노래방' 방역 소독 완료, 임시 폐쇄중
	18:30 ~ 21:00	위의 노래방	직원 1명 → 1명 자가격리
		택시 타기 전 도보 이동 CCTV 확인	확진자 마스크 착용
	21:00	택시 타고 자택 귀가(함덕파출소 앞에서 탑승)	택시기사 1명
02.27		거주 주택에서 기상 후 휴식 ※ 피곤함을 느낌	
	13:00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함덕 해안도로 드라이브	
	16:56	함덕 GS25 코업시티점 방문	접촉자 파악중 → '함덕 GS25 코업시티점' 본사 확인중 및 방역 소독 완료 확진자 마스크 착용 확인
	17:00	지인 B씨의 거주 주택으로 귀가(집에서 저녁식사)	
02.28		거주 주택에서 기상 후 휴식	
	21:57	치킨 배달 받음	배달 직원 1명

		거주 주택에서 기상 후 휴식	
02.29	14:00 ~ 14:49	지인 B씨와 함덕 ‘대성아구찜’ 식사 ※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음.	식당 직원 1명 (확진자가 카드 결제, 접촉여부 파악 중) → 함덕 ‘대성아구찜’ 10명 자가격리
	15:20	지인 B씨와 함께 신촌 ‘피플’ 카페 커피 2잔 테이크 아웃	여직원 2명 → 신촌 ‘피플’ 카페 2명 자가격리
	신촌 부둣가쪽 20분정도 산책, 만난 사람 없음		
	17:00	거주 주택	
03.01	09:00	기상	
	14:47	언니에게서 어머니 확진소식 연락받음	
	16:00	지인 B씨 차로 한마음병원으로 출발	
	17:00	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 도착, 제한된 동선에 따라 이동	→ 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 방역 소독 완료
	19:00	거주 주택 도착 후 자가격리	
	24:00	확진 판정 후 이송	

※ 해당 동선은 1차적으로 확진자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긴급사태 대비한 병상 확보 완료.. 인심병원도 4곳으로 확대

- 3일 의료기관·요양시설 26개소 환자 소개 완료 예정.. 도내 3개소 464개 병상 확보 -
- 2일 기준 제주한라병원·제주대병원·한마음병원·중앙병원 ‘국민안심병원’ 지정 -
- 타 지역 환자위한 병상 제공 “논의된 일 없고 현실성도 떨어져” -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의료기관들과 함께 강력한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갖추고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때를 대비한 비상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감염병 관리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소개\*\* 명령을 내린 결과, 같은 달 29일까지 목표 병상(464) 중 444병상(95.7%)을 확보했고 남은 20병실(3.3%)에 대해 오는 3일까지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으로 이동 예정이다.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 병동 전체를 비워 음압, 격리 또는 일반병실 확보

○ 소개령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령과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 소개령에 따라 확보되는 음압병상은 11병상이며, 나머지 병상에 대해서도 점차 음압병상·병실로 전환할 예정이다.

○ 소개된 의료기관 중 제주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총 146명은 의료기관 15곳 및 요양시설 11곳 등으로 이송됐다.

□ 제주도는 도내 3개 의료기관 TF팀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병상 확보와 기존 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 자원 수요량을 파악해왔다.

-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코로나19 지역 병상 확보 시·도담당관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및 행정안전부 사무관 등 파견인원이 직접 현장 등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주도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특히 도는 소개명령에 따른 의료 인력 및 장비\*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기관 소요예산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병상 확보에 따른 자원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 이동형 음압기, 이동형 X-ray, 인공호흡기 등

-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병상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사 9명, 간호사 77명)과 장비(이동형 음압기 71대 등)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 소개령이 내려진 감염병 관리기관 3개소의 총 의료인력은 현재 의사 55명, 간호사 241명으로 조사됐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는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나 현재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소개명령에 따른 환자 이송은 차후 긴

급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그로 인한 기존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은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며,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지역 확진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에 협조 해주신 환자 및 가족들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 이어 “이송되는 환자들이 기존 병원에서도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이번 소개령으로 이송된 환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최우선 순위로 본래 의료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도내 국민안심병원\* 지정 기관도 기존 2개소에서 4개로 늘어난다.

\*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자가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되는 병원으로, 병원내 감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중앙병원과 한마음병원이 도내 국민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 이로써 도내 국민안심병원은 지정 완료된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등 2개소를 더해 총 4개소가 됐다.

-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마음병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가동하며, 제주한라병원은 지난달 27일, 중앙병원은 지난달 29일부터 가동 중이다.

□ 한편 지난 달 29일 일부 언론 보도와 SNS상에서 다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병상을 제공한다고 잘못 알려졌던 내용에 대해 제주도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 제주도는 28일 저녁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보건관계 실무팀장 간에 제주 지역 병상 현황에 대한 조사차 통화가 있었으나 이는 정부가 전국 시도의 병상에 대한 수요 조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통화 이후 후속 조치나 결정 사항은 전혀 없고 이를 29일 밤 행안부와의 통화에서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 제주도는 정부가 비상시 병상 사용지정 권한은 있으나 제주는 항공편을 이용해 환자와 가족을 이송해야 하는 등 사실상 지역적 여건과 특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특히 지난 1일 브리핑에서는 제주의료원장인 직접 참석해 제주도의 병상을 다른 지역 확진자를 수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주장이 유포되고는 있으나 이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3834

## 어디 어디 들렀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CCTV로 포착

- 제주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위한 CCTV 분석조 편성해 -
- 동행자 유무, 대중교통 탑승 정보 등 접촉자 및 방역 현장에 중요한 단서 제공 -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발 빠른 동선 추적을 위한 CCTV 분석 체계를 마련했다.
    - 이는 도가 지난 24일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방위체제에 돌입함을 선언한 이후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 제주도는 CCTV 정밀 분석을 통한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도민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 『코로나19 대응 CCTV 근무조』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내 소재한 CCTV관제센터와 안전정책과내 근무로 구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하게 된다.
    - 확진자 발생시 관제센터에서는 현재 실시간 관제 방식에서 확진자 동선 추적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총 116명의 관제요원(5개조)을 총괄할 상주 일반직 공무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보장된다.
- \* 단, 동선 추적 근무조를 제외한 근무조는 실시간 상황관제 평시업무 수행
- 사무실 근무조는 2개조, 총 8명으로 2교대로 근무할 계획이며 이중 4명은 자치경찰단에서 파견된다. 사무실 근무조의 경우에는 도 대중교통과와 행정시와 협업해 CCTV 분석 업무를 총괄하고 범죄 예방·주정차 단속·노선버스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편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들은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일자별 확진자 진술 동선과 인상착의를 확보한 뒤 분야별 CCTV운영팀에 전파하고, 각 팀에서는 영상 분석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최종 종합된 확진자 동선과 영상 자료는 방역대책본부내 역학조사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특히 CCTV를 통해 마스크 착용 여부, 동행자 유무, 버스나 택시 등의 이동수단(버스\_노선,번호,승객수 / 택시\_번호) 정보를 확인하는 등 접촉자와 방역 현장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 도는 그 동안 CCTV 분석을 통해 지난 달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중국인의 약국, 편의점, 의류판매점 방문 및 노선버스 정보를 추가 확인 한 바 있다.
- 더불어 139번 확진자(제주지역 1번 확진자)의 택시 차량번호, 222번 확진자(제주지역 2번 확진자)의 편의점 방문, 노선버스 탑승정보 등을 추가 확인함으로써 밀접 접촉자와 자가 격리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하고 방문 장소 등에 소독을 실시 한 바도 있다.

□ CCTV 분석절차

- ① 확진자 진술 동선 및 인상착의 확보(코로나19 CCTV분석조)
- ② 각 CCTV운영팀(범죄예방, 주차지도팀, 노선버스)으로 전파
- ③ 각 팀별 CCTV분석활동 전개
- ④ 분석결과 종합 확진자 동선 우선 구두통보, 자료(영상파일 등) 전송  
(코로나19 CCTV분석조 → 도 방역대책본부)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 064) 710-3850

## 제주도, 농축사업장 코로나 예방 지속 점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방활동 강화...입국제한 대비 인력수급 방안 추진 -
- 특별방역대책상황실 한 달 연장...거점소독·공항만 방역 유지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농·축업 사업장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제주6차산업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6차산업협회와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인증업체 99곳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에 나섰다.
- 점검반은 오는 5일까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세정제 비치 여부, 사업장내 예방수칙을 점검하고,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지원과 중소기업특별지원 안정자금에 대해 안내한다.
- 지난달 26일에는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업체 3곳을 찾아 위생 용품을 전달하고, 식재료 보관 창고와 차량 소독, 식재료 유통 시 방역 및 위생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도내 선과장 424곳에 매주 문자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감귤연합회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법인, 제주농협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 수급 대책도 마련한다.

- 도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안내방송과 문자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2월 27일 현재 도내 계절근로자는 모두 21명(베트남 20명, 중국 1명)이다.

- 코로나 사태로 올해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될 때를 대비해 영농인력지원센터와 함께 인력 대체 방안을 추진한다.
-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고병원성AI 특별방역 대책상황실을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과 연계해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특별대책상황실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ASF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이에 따라, 공·항만 방역을 비롯해 축산사업장 등에 소독활동을 지속하고 거점소독시설도 유지한다.
  - 앞서, 제주도는 도내 축산사업장 6곳(도축장 4곳, 목장형 유가공시설 2곳)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등에 방역복 1,800세트를 지원했다.

※ 관련 문의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홍충효 과장 064) 710-3050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고행만 과장 064) 710-3160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한인수 과장 064) 710-3190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강원명 과장 064) 710-2120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김익천 과장 064)710-2660

## 제주지역 교회 165개소 예배 취소 동참

- 사전 파악 시보다 91개소 추가로 예배 취소해... 평소보다 한산 분위기 -

- 제주도가 지난 3월 1일 도내 개신교 시설 420곳에 대한 현황 파악 결과 165개 교회(제주시 118곳, 서귀포시 47곳)가 예배 취소 분위기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월 28일 확인 시에는 총 74개소가 예배 취소하는 것으로 파악 됐으나, 실제 주말인 3월 1일(일) 현장 확인 결과 91개소가 추가적으로 예배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회 건물에는 예배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으며, 출입구가 닫혀 실제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다.
- 예배가 진행된 교회인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들에 대한 불참 권고로 참여 규모는 평상시의 30~4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 소규모인 교회인 경우에는 예배 참가자가 10명 이내로 확인됐으며,
  -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손 소독제 비치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사항을 준수했으며, 평소 제공하던 식사 제공도 중단했다.
-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26일 제주 4대 종단으로 구성된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 고 요청한 바 있다.

- 이에 도기교독교단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도내 교회 420곳에 긴급 서한을 보내 다음달 8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로 전환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 관련 문의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강기종 종교팀장 064) 710-3206

## 코로나19 차단 만전.. 양지공원 방문객 전원 발열검사 실시

- 2. 28 ~ 3. 1까지 1300여명 대상 검사 완료... 금주 중 열화상카메라 도입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동에 따라 공공 장례 시설인 양지공원에서조차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는 지난 2월 28일부터 화장동 입구 현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검사에 나서고 있다.
  - 발열 검사에는 총 6명이 투입된다. 2명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사전 설명하고 2명이 실제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나머지 2명은 검사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양지공원을 찾은 방문객 1300여명에 대해서 발열검사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특이 증상을 보이는 방문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양지공원은 방문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해 발열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 한편, 도는 올해 청명·한식일이 포함된 4월 1일에서 4월 10일까지와 윤달기간인 5월 23일에서 6월 20일까지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평상시 1일 60구에서 100구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청명·한식 및 윤달에는 산소를 개장

(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 보다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급증할 것을 고려해 평소 화장 능력 범위를 상회해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17년 윤달(6.24.~7.22.) 개장유골 화장 1,811구(\*'17년 월평균 707구)  
'19년 청명·한식기간(4.1.~4.10) 개장유골 화장 1일 평균 40구(\*'19년 일평균 15구)

○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짜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 예약방법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http://www.ehaneul.go.kr))에 접속, 유족이 원하는 날짜에 예약

□ 더불어 지난 2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화장되며, 도는 의료기관 등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망자의 시신처리와 장례 전반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김성영 양지공원팀장 064) 710-6621

-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참고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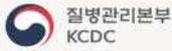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문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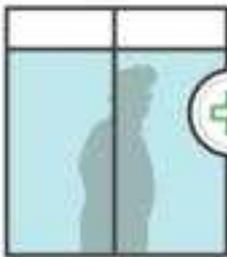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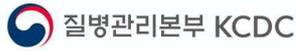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http://www.journalist.or.kr)

##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신문윤리실천요강]

####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사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사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사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